

전주시 긴급 주거시설 취약계층 지원

노송동 도시혁신센터에 순환형 주거시설 위치

전주시가 화재로 주거지를 잃거나 주택 개량을 위해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노후화된 건물을 개량하는 시민들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순환형주거시설 2개 동과 화재등 자연재해로 보급자리를 잃은 시민들을 위한 긴급주거시설 2개 동을 갖춘 순환형·긴급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노송동 전주시 도시혁신센터에 위치한 순환형·긴급주거시설은 시가 지난 2015년 10월 노송동 천사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혁신센터 건립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연계모델이다.

이 곳에는 현재 설 명절을 앞두고 갑작스레 발생한 화재로 보급자리를 잃어버린 김모(전주시 덕진구 송천동·49·여)씨가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갑작스런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관할 구청과 소방서로부터 안내받은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내 순환형·긴급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녀가 입주한 시설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 가스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모두 완비돼 있어 경제적·정신적 고통에서 점차 해방되고 있다.

순환형·긴급주거시설은 도시혁신센터 내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내 62㎡와 65.6㎡의 전용면적에 각각 2세대씩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는 시설이다.

건물 1층에는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된 주택 개량(신축, 재축)을 위해 한시적 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 이용 가능한 2개동이 있으며, 2층에는 화재와 침수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박탈당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주거시설 2개동이 있다.

순환형·긴급주거시설이 본격 가동되면서 긴급히 주거시설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팀(063-281-9304)에 상담 후 접수하면 되며, 선정 위원회의 입주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정월 장 담그기

정월대보름을 앞둔 9일 오전 순창군 순창읍 고추장민속마을에서 기능인 조경자 할머니와 며느리 박현순씨가 장을 담기 위해 겨우내 뜬 메주를 항아리에 넣고 있다.

이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단, 긴급히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후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순환형·긴급주거시설은 전주시라는 도시 공간 안에서 사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지,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등 전주시의 관련 정책들이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의 가치에 맞게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형 창의교육 밑그림 완성

자기찾기·재미있는 관계맺기 등 운영 목표 설정

전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주형 창의교육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전주형 창의교육은 학교와 학원 등 학습과 학습에만 머물렀던 청소년들의 ‘놀이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추진하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창의력과 자기주도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창의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창의교육의 국내·외 동향 및 선진 사례 조사, 청소년·교원·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주만의 독특성을 가진 창의교육 운영 프로그램 기본 모형과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창의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획부터 운영까지 청소년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운영’ 형태의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운영 목표를 △자기찾기 △재미있는 관계맺기 △지역사회와 유기적 소통 등으로 설정했다. 또 기획역량과 실천역량으로 청소년들의 역량을 나눠 제시하며, 상황제시, 창의적설계, 감성적체험, 새로운도전, 산출물발표 등으로 이어지는 창의교육 모형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전주형 창의교육 운영을 위한 세

부 실행계획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전주형 창의교육이 본격 운영되면,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줄어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청소년기관과 대한교육기관, 중학교 등 10개 기관과 협력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회의’를 개최했다. 또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 수 있도록 중·고교생 30명으로 구성된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단도 운영했다.

시는 청소년 관련 학과 전공자와 교원자격증,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청소년 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40명으로 ‘빅음 청소년 활동 지원단’을 꾸리고,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할 지도교사 양성에도 힘써왔다. /김영재 기자

음주상태로 고의 구급차 박은 60대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9일 음주운전 중 뒤따르던 구급차가 크라션을 울리자 후진으로 박고 도주한 혐의를 올리자 후진으로 박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한음마을 인근에서 119구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으로 크라션을 울리면서 뒤를 따라오자 진로를 방해한 후 후진을 해서 구급차를 들이 박고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중인 소방공무원 A씨(30)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44만원의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콜농도 0.217%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나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강영수 전 도의회 부의장 집유

재량사업비 업체에 제공 후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본인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업체에게 제공하고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강영수(66) 전 도의회 부의장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4년 및 벌금 5,200만원과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강 전 의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이 형량을 줄이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강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진모씨(51)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300만원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의원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들

에게 맡기던 리베이트로 2,600만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브로커 진씨는 사업 예산 2억 7,000만원 중 9,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겨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재량사업비를 빌미로 돈을 받음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려 도의회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전력이 없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영장 발부 이후에는 잘못을 뉘우친 점, 도의회의원으로 공익을 위해 힘써 앞서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 비추어 의원직 사퇴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전주시 주부들이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가장 깨끗한 도시 전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회장 조정희) 회원 150여명은 이날 시청광장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달 간의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마친 단원들은 전주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하고, 이중 호수를 찾은 시민들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주부환경감시단의 활동 취지를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은 그간 주로 청소취약지역 원룸·다가구 밀집지역, 서부 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쳐왔지만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신속집행 지역경제 도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13억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신속 집행 대상액인 22억원의 60%에 해당하는 13억원을 잠정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사전절차 이행 및 조기 시행 등을 통해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전략적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오는 6월까지 100% 목표달성을 위해 전 행진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정 신속집행은 정부와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매년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공기업정책준수)등 대내·외 기관 평가에서도 주요핵심 지표로 반영된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일정별 집행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각 팀별 및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추진상 어려움을 파악해 해결하는 등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